



## 2016년 중국 대형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 현황과 전망

이소양 연구원

2016년 중국의 대형 보험 그룹인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신화생명보험회사 및 중국태평양보험그룹 등 3개사의 당기순이익은 모두 자산운용 수익 감소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반면 중국평안보험그룹은 산하 자회사의 보험, 은행, 자산관리 및 핀테크 사업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함. 전문가들은 향후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평안보험그룹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대형 보험그룹인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신화생명보험회사 및 중국태평양보험그룹<sup>1)</sup>의 당기순이익<sup>2)</sup>은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2016년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신화생명보험회사 및 중국태평양보험그룹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4,305억 위안, 1,126억 위안, 2,34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8.3%, 0.6%, 15.1% 증가함.
  - 그러나 이들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91억 위안, 49억 위안, 12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4.9%, 42.5%, 32.0% 감소함.
- 상기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은 중국 주식시장의 불황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 감소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2012년부터 통화완화정책을 단행하면서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보험회사들은 투자수익률을 제고를 위해 주식 투자를 크게 확대함.
    - 2016년 말 주식 투자 비중은 중국태평양보험그룹(12.3%)을 제외한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17.2%), 중국신화생명보험회사(16.5%)가 전체 평균 수준(13.2%<sup>3)</sup>)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1) 중국태평양보험그룹은 태평양생명보험회사 및 태평양손해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2)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지분율을 고려해 계산하는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을 의미함.

3) 이는 전체 158개 중국 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에서 주식(주식형 펀드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15년 말 3,539.2에서 3,103.6까지 12.3% 하락하였으며,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신화생명보험회사 및 중국태평양보험그룹의 자산운용 수익도 각각 1,208억 위안, 340억 위안, 45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0%, 26.4%, 17.9% 감소함.
- 반면 중국평안보험그룹은 산하 자회사의 보험,<sup>4)</sup> 은행, 자산관리 및 핀테크 사업<sup>5)</sup>의 동반 성장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624억 위안을 기록함.
  - 중국평안보험그룹은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에서부터 은행, 자산관리, 핀테크 사업까지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함.
    - 1995년 자산관리, 2003년 은행, 2012년 핀테크 사업을 시작함.
  - 2016년 중국평안보험그룹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34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나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7.9%에서 55.6%로 소폭 축소됨.
    - 중국평안보험그룹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도 1,09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0.0% 감소함.
  - 반면 은행, 자산관리 및 핀테크 사업의 당기순이익은 27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1%에서 44.4%로 상승함.
    - 2016년 자산관리사업의 당기순이익은 9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하였으나, 핀테크 사업의 당기순이익은 52억 위안으로 262.5% 상승하였으며 은행업의 당기순이익은 129억 위안으로 전년과 동일함.
- 전문가들은 향후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평안보험그룹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sup>6)</sup>
  - 최근 중국 보험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상기 3개 보험회사들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당기순이익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음.
  - 보험 사업부터 은행, 자산관리 사업까지 영위하는 중국평안보험그룹은 비(非)보험 사업의 영역 확대를 통해 보험 사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중국평안보험그룹 자회사의 핀테크 사업은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불과 5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됨. **kiri**

4) 중국평안보험그룹 산하 보험회사는 평안생명보험회사, 평안손해보험회사, 평안연금보험회사, 평안건강보험회사 등이 있음.  
 5) 중국평안보험그룹 산하 자회사 가운데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평안은행, 자산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평안증권, 평안신탁, 평안자산관리, 평안금융리스,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LUFAX 등이 있음.  
 6) 长江证券(2017. 4), “保险行业2016年年报综述: 转型以来”.